

마르코 복음서 13장

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(마태 24,1-2; 루카 21,5-6)

- 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. “스승님, 보십시오.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입니까?”
-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?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.”

- 1) 사람들은 흔히 그런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 앞에서는 압도당한다.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다.
- 2) 성전은 하느님 뜻에 맞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때 가치가 있다.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는 무너진 것과 같다. 성당 안에서의 마음이 밖에서의 생활과 같아야 한다.
- 3) 마태오 복음서 24,1-2해설 참조.

재난의 시작(마태 24,3-14; 루카 21,7-19)

- 3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,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.

이 네 사람은 맨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다(1,16-20 참조).

- 4 “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.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?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?”
-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“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.
-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, ‘내가 그리스도다.’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.
- 7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.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.
- 8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,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.
-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.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,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.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.
- 10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.
-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서 넘길 때,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.

그저 그대에 너희에게 일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.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.

- 12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,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.
- 13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.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.”

1) 마태오 복음서 24,3-14해설 참조.

2)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 복음은 고통과 박해를 수반한다. 그리고 참된 신앙은 인내를 포함한다.

가장 큰 재난(마태 24,15-28; 루카 21,20-24)

- 14 “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—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. — 그대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.
- 15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라.
- 16 들에 있는 이는 겹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.
- 17 불행하여라,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!
- 18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.
- 19 그 무렵에 환난이 닥칠 터인데, 그러한 환난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.
- 20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 주지 않으셨으면, 어떠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. 그러나 주님께서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 주셨다.
- 21 그대에 누가 너희에게 ‘보아라,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!’, 또는 ‘보아라, 저기 계시다!’ 하더라도 믿지 마라.
-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,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.
- 23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.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.”

1) 마태오 복음서 24,15-28 해설 참조.

2) 참된 믿음은 현혹되기 쉬운 거짓 기적에 빠지지 않는다. 오직 말씀으로 무장한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는다.

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(마태 24,29-31; 루카 21,25-28)

- 24 “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
해는 어두워지고

-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
-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
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.
- 26 그때에 '사람의 아들이'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'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' 사람들이 볼 것이다.
-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,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.”

마태오 복음서 24.29-31 해설 참조.

무화과나무의 교훈(마태 24,32-35; 루카 21,29-33)

- 28 “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.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.
-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,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.
-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.
-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”

마태오 복음서 24,32-35 해설 참조.

깨어 있어라(마태 24,36-44)

- 32 “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.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.
-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.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.
-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.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,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.
- 35 그러니 깨어 있어라.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, 저녁일지, 한밤중일지, 닭이 울 때일지,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.
-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.
-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. 깨어 있어라.”

1) 마태오 복음서 24,36-44 해설 참조.

2) 신앙인은 깨어 있는 자들이다.